



# 우리의 생활공간

**‘가로’**







도시활동의 근원이 되는 시가지의 도로,  
가로 (Street)

( a u r , )



산업혁명 이후 도로는 많은 물자와 사람을  
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‘차량 중심’으로 구성되어 왔다.

**( a u r <sub>i</sub> )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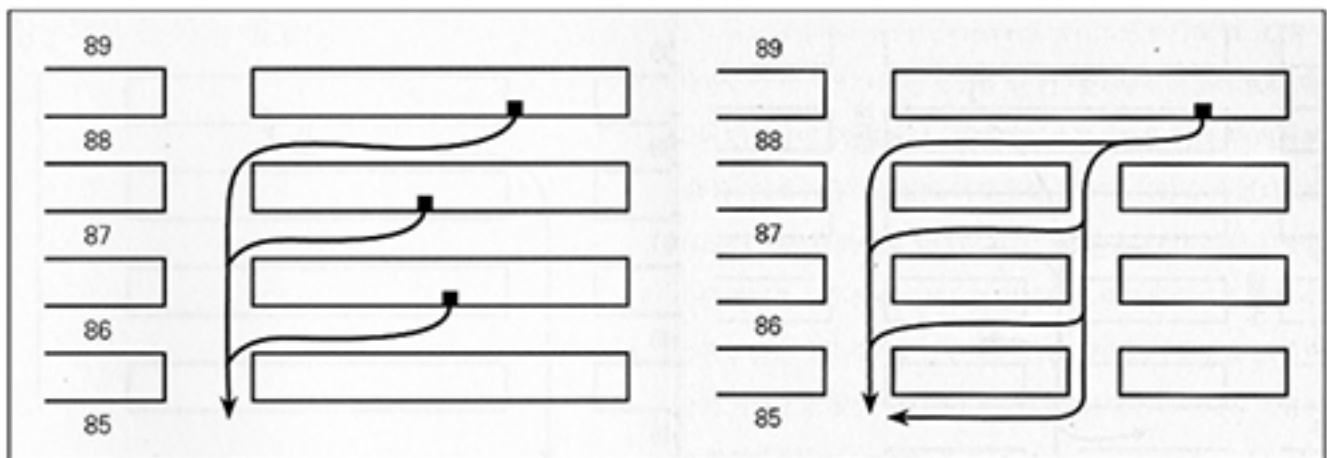


20세기 중반 이후, **인간적인 활력**이 공존하는  
가로를 지향하는 논의들이 지속되었는데,  
사회 운동가인 제인 제이콥스는

**(aur<sub>i</sub>)**

‘다양성이 살아숨쉬는 가로’를  
가장 이상적인 가로로 생각하고  
이를 구성하는 네가지 요소를 꼽았다.

1. 시간에 상관없이 사람이 존재하는 **다양한 용도**
2. 경로의 변환과 선택이 자유로운 **짧은 블록길이**
3. 각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**다양한 시대의 건물들**
4. 사람들의 시선으로 안전이 지켜지는 **높은 인구밀도**



< 제이콥스가 주장한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내는 작은 블록 >

**( a u r j )**





지금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 
걷기 쉽고, 볼거리가 많으며, 사회적 활동이  
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로를 좋은 가로로 인식한다.

( a u r i )

사람 중심 가로는

핵심적으로 3가지 특성을 가지는데

( a u r i )



## 1. Shared space (공유하는 공간)

서로 다른 움직임들을 고려하여 공간이 적절히 배분된,  
사람이 자동차나 장애물의 방해를 적게받고  
늘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로.





이미지출처: [www.apur.org](http://www.apur.org)

## 2. Street as place (활동이 일어나는 공간)

이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

보고, 먹고,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고

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간.

(aur<sub>i</sub>)



이미지출처: [www.gehlarchitect.com](http://www.gehlarchitect.com)

### 3. Human scale street (쾌적한 공간)

사람 눈높이에서 인지하는 1층 전면 공간이  
적절하게 구성되어 편안하게 느껴지는 규모의 공간.





London Oxford Circus  
before & after

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 
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사람 중심의 가로를 위한  
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다.

(aur<sub>i</sub>)



< 벤쿠버시 : 가로경관 콘셉트 플랜 >

캐나다의 **벤쿠버시**는 2006년  
 보행자를 교통의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 
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 후, 이를 중심으로  
 보행자 도로와 커뮤니티 센터를 배치하였다.

(aur<sub>i</sub>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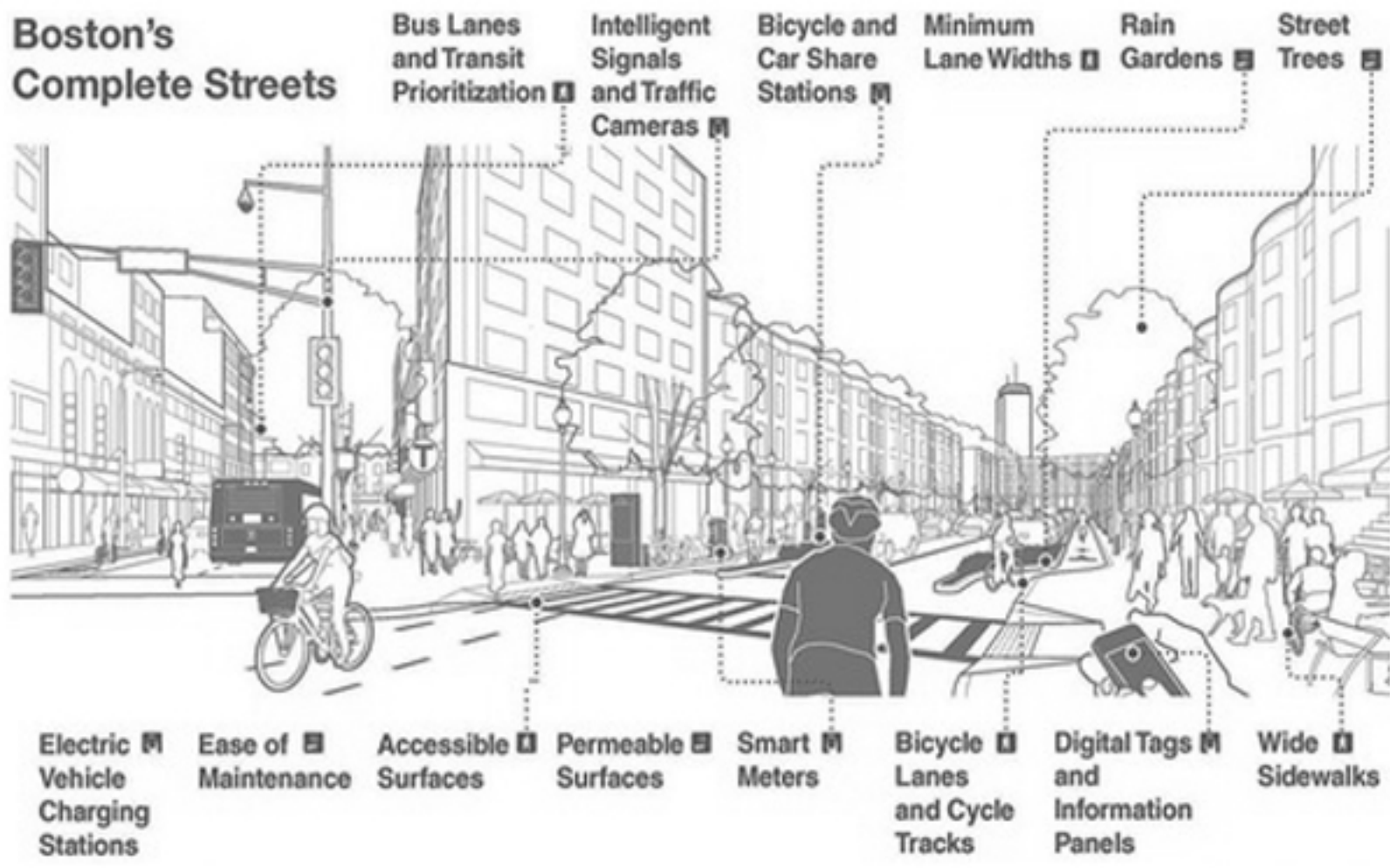


< 신주쿠 6초매 서북지구 광장 >

일본의 동경시는, 가로와 광장을 중심으로  
기성 시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 
보행자 통로에 활기를 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.

( a u r j )

# Boston's Complete Streets



< Boston Complete Street Guideline >

우리도 가로를 다양한 주체가

공유하는 공간이며, 이동만을 위한 선(線)이 아니라  
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 
 도시구조와 가로공간계획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.

( a u r j )



AURI가 만드는,  
밀어보고 키워보는 건축·도시 관련 이슈



[www.auri.re.kr](http://www.auri.re.kr)

